

순정 이

교구계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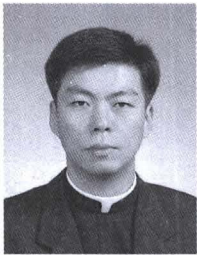
1년 구독료 : 10,000원
후원계좌
전북 505-13-0313012

쌍백합

연중 제 26주일 2007년 9월 30일 (다해)

강론 ...

선을 소홀히 한 죄



정천봉 신부
(장수 성당 주임)

오늘 우리는 지옥에 간 부자(富者) 이야기를 듣는다.

왜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 그저 부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옥에 갔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일까?

먼저 재물과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자.

예수님께서서는 왜? '부자와 재물'에 대해 강도 높은 경고를 하셨을까?

그 이유는 분명하다. 재물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불가결한 것 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영원한 생명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렇다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부자(富者)는 왜 지옥에 갔을까?

우리의 눈을 잠시 부잣집 문간에 버려져 있던 가난한 나자로에게로 향해 보자. 나자로는 멀리도 아닌 아주 가까운 곳에서 부자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부자가 지옥에 가게 된 이유를 알 수 있다.

지옥이란, '죄'를 지어서 가는 곳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죄'라고 하는가? 해서는 안될 일을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한다.

즉, "OO 해서는 안 된다", "OO 하지 마라" 라는 계명을 어겼을 때,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꼭 이것만이 '죄'는 아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이다.

즉,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처럼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것도 분명히 '죄'라는 것이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부자(富者)에게서 그가 해서는 안될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찾아볼 수 없지만, 그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죄는 찾을 수 있다. 바로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지 않은 죄이다. 멀리도 아닌 가까운 자기 집 대문간에 있으면서 사랑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 대한 무관심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다.

우리가 자주하는 통회의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

"...악을 저지르고 선을 소홀히 한 잘못..."

이는 악을 저지른 것만이 죄가 아니라, 선을 소홀히 한 것도 죄라는 것을 잘 상기시켜주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을 전달함과 동시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피하기만 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성숙하고 참다운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이다.

지혜의 층계



최 용준 신부
뉴욕 S.I 본당 주임

“우리 함께 시비를 가려 봅시다. ‘나는 옳게 살았는데 하느님께서 죄를 주신다. 바로 살았는데 이 아픔이 웬일인가? 나 아무 죄도 없는데 죽을 병이 들다니’ 세상에 옳같은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욘 34,6)

세상에는 깨달음으로 얻는 지혜의 세계가 있다. 창조된 세상이 넓다 하지만 지혜로운 인간은 세상의 뒤편까지도 통찰한다. 보이는 것은 감각의 세계요, 보이지 않는 이면은 관조의 세계다.



들이 말하는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가 아니었다. 대단한 것 같아도 그런 것 짚은 누구나 다 안다. 몸으로 수궁하는 지혜라면 그나마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입술로만 하는 충고는 바람결

의 먼지일 뿐이다. 걷지 않아도 볼 수 있고 모르면서도 깨닫는다. 베델의 들녘에 내린(창세 28,12) 사다리다. 그런 것이었을까. 그저 허공이었을 뿐인데도 지혜의 내림이 있었다.

의 먼지일 뿐이다.

세상의 이치를 터득한 자는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그러나 인생의 경륜을 깨달은 자는 몸 둘 곳을 찾으며 숙연해진다. 세상의 지혜는 사람을 부추겨 정열의 뜻을 달게 하지만 하늘의 지혜는 삶을 깨닫고 가는 길을 되새기게 한다. 지혜도 오는 곳에 따라 품격이 다르니 깨달았다 하여 기뻐할 일만은 아니다. 사람은 지혜로 충고를 하되 모르는 지혜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감히 엘리후가 설 익은 지혜로 충고를 하려 든다. 저 높은 하늘 층계를 바라보며 애태우고 있는데 땅의 첫 계단을 놓아 보이며 으스스댄다. 땅에 붙은 지혜는 탄탄하고 굳건하다. 그러나 땅의 지혜는 바벨탑은 쌓을 망정 하늘에 오르는 못한다.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행여 붙잡을까 울고 있는데 하느님께 대든다고 거칠게 나무란다. 고통과 시름과 안타까움이 뒤범벅되고 어둠은 이미 닥쳤는데 사다리는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

땅이 지식의 영원한 발판이 아니듯 지혜에도 뛰어 넘을 수 없는 층계가 있다. 온전히 순종하고 죄 없는 인간일지라도 깨달을 수 없는 지혜가 있다. 욕이 괴로워하며 그토록 듣기 원했던 대답은 친구들의 충고가 아니었다. 그

천상의 지혜는 하느님의 옥좌와도 같아 거대한 심연을 뛰어넘을 수 없다. 인간은 그 뒷모습이라도 보기를 원하지만 그것도 하느님께서 허락하실 때의 일이다. 그러나 그런 정도까지 지혜의 계단을 오른 자라면 복되다. 욕은 지금 그 층계의 심연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림 : 박종구 (바드리시오)

고추를 따면서...

며칠전에 임실에서 한 자매님께서 농촌봉사활동으로 고추 따기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다. 자매님은 귀농을 한지 10년 쯤 이신데 시골로 성경책 한권 들고 오셨다는 이야기를 예전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분이셨다. 8월 말쯤 전화를 받았는데 비가 2주동안 계속 내려 9월 둘째 주에나 갈 수 있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전화주신 자매님의 고추밭이 아니라 옆집에 사시는 할머니 고추밭이었다. 그 할머니는 다리, 허리가 안좋아 도저히 고추를 딸수 없고 고추밭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농촌사목으로 도움을 요청하신 거였다. 농촌 살리기운동 월례회의때 이야기를 하니 몇몇 분들이 가서 도와주기로 약속을 하여 비 때문에 늦

었지만 우리는 고추를 따러 임실로 향하였다.

전주에서 한 시간 정도 옥정호를 끼고 시골 골짜기로 들어가니 고추밭이 보였다. 아침부터 열심히 고추를 따기 시작했는데 절반은 제 때에 따지 못하여 고추에 물이 차 있었다. 절반은 버리는 고추밭을 보면서 아까운 마음과 할머니의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릴 수 있었다.

몇 명 안되는 인원이었지만 그래도 자원해주신

자원봉사 자매님들께 감사했다. 우리를 너무 반갑게 맞이하고 맛있는 점심을 준비해주셔서 고추밭 옆 아스팔트 길 위에서 자리를 펴고 먹었다. 땀을 흘려 노동을 하고 먹는 점식은 어느 건수성찬이 부럽지 않게 맛있었다.

한낮의 따가운 햇볕이 내려 쬐어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만 적은 인원으로 하루 동안 고추를 다 따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마음이 너무 바쁜 나머지 슬픔도 없이 곧바로 작업에 들어갔다. 열심히 고추를 따면서 젊은이들도 다 떠나고 할아버지 할머니 들만 남아, 애써 심어놓은 작물을 제때 거두지 못해 마음이 숯덩이처럼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노인네들이 애처롭고 안쓰럽게 느껴져 마음이 편치 못했다.

오늘 우리가 벌이는 고추따기처럼 작은 도움일지라도 땅에 닿을듯 굽은 허리를 지팡이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르신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됨을 느끼며 농촌과 도시간에 따뜻하고 정겨운 나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해 보았다.



김지영(마르띠나)
(농촌사목 사무국장)



입당송 다니 3,31,29,30,43,42 참조

주님, 주님께서서는 저희에게 하신 그 모든 것을 진실한 판결에 따라 행하셨나이다. 저희는 주님께 죄를 짓고, 주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았나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희를 대해 주소서.

제1독서 야고 6,17-4-7

회답송 시편 146(145),6-7-8-9-10(◎ 루카 1)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제2독서 1티모 6,17-16

복음 환호송 2코린 8,9

◎ 알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시면서도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너희가 그 가난으로 부유해졌도다. 알렐루야.◎

복음 루카 16,19-31

영성체송 시편 119(118),49-50 참조

주님,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님께서 그 말씀에 희망을 두게 하셨으니, 그것이 고통 가운데 제 위로이옵니다.

최양업 신부의 삶과 예수·성모님 모습 질박한 흙으로 빚어 정감 넘쳐



어머니가 좋아요! 23×15×34cm



작고 소중한... 16×30×12cm



똑같이 사랑한다 45×42×100cm

한국 천주교회의 첫번째 신학생이며 두번째 신부인 최양업신부(1845년 8월 17일 중국상해서 서품, 1861년 6월 15일 경북 문경서 과로로 선종)의 삶과 함께 예수님, 성모님, 요셉 성인을 흙으로 빚어 소박하고 포근하고 정감있게 표현한 도예가 한미씨(테레사)의 '작고 소중한-성물 순회전' 이 열려 눈길을 끌고 있다.

작가는 "흙으로 빚어내는 예수님, 성모님, 성요셉은 제단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예수님, 성모님의 모습이라기 보다는 숨결처럼 늘 가까이 께전에서 지극하신 마음으로 나지막히 기도해주시는 우리네 부모님의 모습으로 빚게 되었다"고 작품 배경을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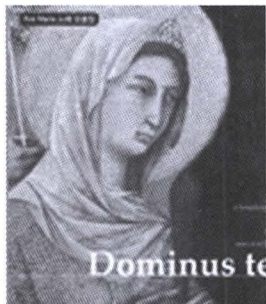


어머니 품안에서... 60×86×43cm

일시 : 9월 29일(토)~10월 14일(주일) 오전10시~오후8시. 휴관(월요일)
장소 : 신태인 성당
오픈식 : 2007년 9월 29일(토) 오후 6시
문의 : 063) 571-8201

일시 : 10월 15일(월)~10월 29일(월) 오전 10시~오후 8시. 휴관 없음
장소 : 바오로딸 서원
오픈식 : 2007년 10월 15일(월) 오후 6시
문의 : 063) 252-3398

제 5대 조선교구장 다블뤼 주교와 구노의 '아베마리아' 에 얽힌 사연



아베마리아 노래 모음집
CD / 12,000원 / 바오로 딸
합창 이영화 · 김효정

어린 구노는 음악 신동이라 불렸습니다. 빠리 외방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다녔는데 같은 학급에는 구노가 따라잡을 수 없을 소위 '음악 천재' 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한 친구였고 선의의 경쟁자였습니다.

프랑스 작곡가 샤를 프랑스와 구노(Gounod, C. F., 1818-1893년)는 1843년 파리 외방 전교회 신학교 성당의 악장(樂長)이 된다. 구노는 그때부터 사제의 길을 걷고자 성 술피스 신학교에서 신학공부를 시작한다.

그러나 그는 선교사의 꿈을 접고 1848년 선교회를 떠나 음악에 전념하지만 마음속엔 선교사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어서 그토록 아름다운 종교음악을 작곡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바람결에 들려오는 소식에 그 친구 소식도 물어 왔습니다. 사제가 된 그 친구가 빠리 외방 선교회에 들어갔다고...

신앙심이 깊었던 구노는 그 친구를 위해 틈틈이 기도를 했습니다.

가끔씩 학교 게시판에는 붉은 글씨로 '...순교' 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볼때마다 평화 속에서 주님을 믿는 순박한 사람들은 전율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느날 이었습니다. 게시판에 그 친구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빨간 글씨는 아니어서 안심을 했지만 내용을 읽어본 구노는 경악스러웠습니다.

그 친구가 '조선 대교구 주교' 로 임명되어 죽음의 땅 '조선' 으로 발령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구노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구노는 날마다 주님과 성모님께 그 친구가 제발 무사히 돌아와 단 한번만이라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느 주일날이었습니다. 구노는 요란하게 울리는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삼중시간도 아는데 이렇게 요란하게 종이 울린다는 것은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의례 그랬듯이 순교자가 또 나온 것이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달음질 쳐서 뛰어간 구노는 실신지경이 되었습니다.

게시판에는 이렇게 쓰여있었습니다.

'다블뤼 주교 조선에서 순교' 구노는 눈물로 눈물로 성모송을 바치며 순교한 벗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Ave Maria는 성모송입니다. 그렇게 친구이자 조선의 주교이자 순교자이며

후일 영광스러운 성인의 관을 쓰신 벗을 기리며 만들어진 노래가 '구노의 아베마리아' 입니다.

이 성가는 조선교회와 순교자를 위한 성가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한 구노의 단 하나의 성가입니다.

김정영 국내산 새우젓 각종 젓갈, 소금 식용, 건어물류

서해젓집

동부 민물 건강원
(각종 중탕 및 과일즙)
삼천동 농협공판장 내
227-8111 / 011-675-0091
염정래(리더야)

이전개업구 '칸보석')
보석전문점 **헤르세**
이동주(도비아) 박영실(헤레나)
서신동 호남문고 맞은편
063)275-0076 / 011)9215-9900

17년 역사 수맥돌침대
- 공장 직판 -
(임응승 신부님 수맥지도)
대표 : 이경복 바오로
전주 1588-5335

고품격 국제결혼

(베트남 · 필리핀 등) 6개국
이종관(도민고)
☎ 016-9612-9380
(063) 241-9380
- 교우분 특별우대 -

<의산> 한빛정형외과

쾌적한 입원실, 물리치료실
원장 : 김선규(라파엘), 이정미(글라리)
- 밤9시까지 야간진료 -
☎ 837-2222~4
(영등동 제일차 APT옆)

효사랑전주요양병원

병원장 박진상(루카)
입원상담 063)278-8288
서노송동 중앙성당 맞은편
효사랑가족요양병원
병원장 김정연(안젤라)
입원상담 063)711-1111~3
효자동 효자프라자 옆

사단법인 한국요가협회 남원지부 온살이 요가원

원장 : 안미선(아가다)
100M
위치 : 남원시 도동동 죽향APT ⇄ 시청
문의 : 635-6575, 016-609-1464

젬인아트

전진야 (실비아)
부부국가자격보석감정사
미국보석학회GIA 감정사
☎(063)462-7777 / 018-648-7777



교구장 일정

- 인보성체수도회 설립자 탄생 100주년 기념미사
10월 1일(월) 오전 10시 30분
- 대전가톨릭대학교 학술제 폐막강연회
10월 2일(화) 오후 2시
- M.E본당임원 워크숍 파견미사
10월 3일(수) 오후 4시
- 성 글라라수도원 주보성인 축일미사
10월 4일(목) 오전 6시 30분
- 견진
10월 6일(토) 인후동
10월 7일(주일) 오전 10시 30분 노송동

미사·행사·모임

- 교구성직자 위령월례미사
10월 1일(월) 오전 11시
- 재경 사제양성후원회 월례미사
10월 1일(월) 오후 2시 유림아트홀
- 전주 시청 로사리오회 미사
10월 1일(월) 오후 6시 40분
- 교구 사회복지후원회 사랑의 다리 전주 월례미사
10월 1일(월) 오전 10시 30분 센터
- 제 13기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학교
10월 1일(월) 오후 1시 전동
- 젊은이 영상 기도모임
10월 2일(화) 오후 7시 전주바오로딸서원
문의: 252-3398
- 전주교구 ME협의회 25주년기념 ME지구 및 본당 임원 워크숍
10월 3일(수)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장소: 새교구청 4층 강당
문의: ME대표 016-612-6223 이진래
011-9641-6223 김기순
016-654-2439 김정민 신부
- 파티마의 세계사도직(푸른군대)
10월 4일(목) 오전 10시 덕진
- 교구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직원 등반
10월 6일(토)
- 성모기사회 모임
10월 6일(토) 오전 10시 효자동
- 성모 신심미사
10월 6일(토) 오전 10시~오후 2시 전동 푸른군대 켈기도 고백성사 파견미사

-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월례미사
10월 6일(토) 오전 10시 30분 송천동
- 청년성서 하반기 그룹 봉헌 미사
10월 7일(주일) 오후 2시 덕진
- 초남이성자 미사
매일 오전 10시 30분(토-오후 3시)
단체순례: 봉고 버스 봉사, 식사(5천원)
문의: 214-5004, 011-674-1711
- 군산 하나회 미사
10월 7일(주일) 오후 2시 나운동
- 포콜라레 모임
10월 7일(주일) 오후 2시 복자성당교육관
- 파티마 성모님 발현 90주년 전국대회 기념미사
10월 13일(토) 오전 9시 30분 치명자산
- ME협의회 제7차 쇄신주말
10월 20일(토)~21일(주일)
장소: 천호 피정의 집
문의: 011-657-6538 채왕석
011-9644-6538 박호선

교육·피정·연수

- 레지오 브레시디움간부 직책별교육
10월 1일(월) 오흥동
- 청년성서 하반기 그룹봉사자 재교육
10월 3일(수) 오전 10시 센터
- 익산지구 본당 사회복지분과 순회교육
10월 7일(주일) 오후 3시 부송동
- 제 2기 익산성모병원 호스피스교육 신청
10월 8일~31일(매주 월-금) 오후 1시 30분
신청기간: 10월 2일까지
(입금순 85명)
교육비: 6만원 (무통장 송금)
농협: 514-01-018450
문의: 063-841-4480 익산성모병원
010-8668-0714 이숙희

제 4회 평화 독서감상문 대회

대상 : 초등학교 및 학부모, 중학생
마감 : 10월 31일(수)
시상 :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시교육감,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평화방송·신분이사장,
서울가톨릭 청소년회 이사장, 한국평화회장 등
주최 : 평화방송·평화신문,
(재) 서울가톨릭 청소년회, 한국평협
문의 : 02-2270-2223(www.pbc.co.kr 참조)

- 가정성화를 위한 계절강좌 3차
10월 16일(화), 23일(화), 30일(화)
오전 10시~12시 30분 센터 3층
대상: 일반신자
주제: 1일-본노감정 다루기
2일-용서, 자기용서
3일-사랑, 자기 사랑
강사: 김정민 신부(가정사목)
참가비: 1인당 3만원
마감: 10월 9일(화)
신청 및 문의: 285-0041(가정사목)
FAX: 285-0049
※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사무실, 사목국 홈페이지
(www.jjsamok.com)

기타

- 호남교회사연구소 소장 자료전
일시: 9월 30일(주일)까지
장소: 전북대박물관 2층 전시실
- 원평 성당 분양 배 수확
매주 주말과 공휴일 오후를 택하여 배 수확을 하겠습니까. 분양하신 분들은 수확해 가시기 바랍니다.
- 놀토에 떠나는 우리가족 체험학습-공예교실
일시: 10월, 11월 둘째·넷째주
(토) 오전 10시 30분~12시
내용:
북아트(10/13), 목공체험(10/27),
종이접기(11/0), 패션페인팅(11/24)
대상: 초등학생(1~3학년) 자녀를 둔
15가족(엄마, 아빠, 아이)
참가비: 2인 가족 3만원
접수: 선착순 방문 및 전화접수(232-0334)

동창회 안내

일시: 10월 3일 오전 11시
장소: 성심학교
회비: 10,000원
전주 성심여중·고 총동창회

한국 순교 복자 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10월 5일(금) 오후 2시
장소: 전주 복자성당 수녀원
주제: 성소와 기도
문의: 041-554-1191~3
010-4761-9217

제1회 전국 중고등생 자원봉사 체험수기 공모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면서 체험했던 내용이나 느낌, 알게 된 보람, 이웃에 대한 사랑, 각오와 다짐, 자원봉사활동이 가져다준 행복(제목자유)
중등부 10매, 고등부 15매 내외분량
접수: sglove@sogang.ac.kr
마감: 9월 30일
문의: 02)705-8117

인보성체수도회 교회음악원 2학기 수강생 모집
성가대 지휘자 및 지도자 과정 : 전례와 교회 전통 전례음악
성가대 봉사자 과정 : 성가대 단원들을위한 기본음악이론 및 전례, 발성법 등
오르간 반주자 및 성악 개인수업
장소: 인보성체수도회 본원
문의: 011-667-7205, 284-3231연림채(라디오)

아동 입양 상담 및 후원 상담
문의: 02)764-4741~3
http://www.성가정임양원.com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임양원

예수회 성소 모임
일시: 10월 27일(토) 16시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장소: 예수회 본부(서강대 K관 뒤)
주제: 고등학생 모임
문의: 02)719-1803, 011-9728-1803
대상: 고등학생 이상

임순남 · 무진장 지구 본당 소식

도동동

주임신부: 625-0091 사무실: 631-0091 주임신부: 김 의 팀
F A X: 633-0081 수녀원: 635-0091 서목회장: 김 기 향

- ◎ 금주 구역성경 쓰기: 집회사 39장 12절~45장 15절
- ◎ 감사: 추석 상차림에 협조해 주신 분들께!
- ◎ 10월은 목주기도 성월, 전교의 달입니다.
- 1. 오늘 ① 정 소화테레사 수녀님 영명 축하식(교중 미사 후)
 - ② 초등부 주일학교 어린양 잔치 새 교구청
- 2. 금주 ① 성시간, 성체강복 4일(목) ② 성모회 5일(금) 미사 후
 - ③ 초등부 주일학교 고백성사일 6일(토)
- 3. 차주 ① 군인주일 2차 헌금 ② 꾸리아
 - ③ 성소후원회비 납부의 날 ④ 벤야민회
- 4. 10월 음로 봉사: 사랑하을 모친 Pr이 수고하시겠습니다.

무주

주임신부: 322-2308 사무실: 324-0555 주임신부: 이상 용
유 지 원: 324-3555 수녀원: 322-2399 서목회장: 김 원 팀

- ◎ 성서읽기: 10월 첫째주간 예레미야서 36장~42장
- ◎ 성체강복: 10월5일(금) 10시미사후
- ◎ 평일미사시간 변경: 10월2일(화)부터 저녁7시
- ◎ 성당청소: 10월6일(토)-사정, 교동반
- 1. 모임 ① 사목회-10월4일(목) 후8시
 - ② 성심회-10월5일(금)10시 미사 후
 - ③테레사회- 10월5일(금) 후8시
- 2. 금주전례: 해설-김연홍. 독서-변상욱 부부
봉헌-최순자, 김명자. 기도-임국영 부부
- 3. 차주전례: 해설-김기욱. 독서-이관승, 박정분
봉헌-임기열 부부. 기도-변상욱 부부

순창

주임신부: 653-1004 사무실: 652-1004 주임신부: 송 호 석
F A X: 653-0414 수녀원: 653-3135 서목회장: 정 윤 열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6521004

- ◎ 성체강복-4일(목) 미사 후
- ◎ 금주 구역미사: 5구역-3일(후7:30), 6구역-5일(후7:30)
- 1. 금주모임: 구역장 모임-3일(수)미사 후, 제대회5일(금)미사 후
- 2. 차주모임: 안사회, 사목회-미사 후
- 3. 청소: 금주-상아 탑, 차주-다윗의 탑
- 4. 차량봉사: 이기주 임래원, 차주-김진한 김희중

쌍교동

주임신부: 633-1004 사무실: 633-4004 주임신부: 박 성 팔
유 지 원: 633-4005 수녀원: 626-1004 서목회장: 양 성 작
홈페이지: http://www.ssangkyo.org

- ◎ 주님께서는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다스리시도다(시편 146)
- 1. 예비자 교리반 시작: 10월 21일(일), 교중미사 후 ※ 많은 인도바랍니다.
- 2. 축 영명: 10월 1일(월) 신 테레사 원장 수녀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 3. 2008년도 본당 월력 제작을 위한 광고 접수합니다. - 선착순
- 4. 선교를 위한 목주기도 100만단 봉헌운동: 현재 871,160단
- 5. 꾸리아 월례회: 10월 7일(일) 교중미사 후
- 6. 센터 신축헌금 신입액: 161,754,000원, 납입액: 135,599,000원
※ 센터 신축헌금 완납자(하이즈, 하정): 강봉국-120만, 김가진-105만, 김재근-150만, 김정-150만, 김명순-50만, 박병정-300만, 윤은숙-24만, 윤효중-30만, 이정자-30만, 이갑순-18만, 심식만-39만, 조동준-100만, 오대근-12만, 장현주-36만, 김학주-12만, 김동진-24만, 서재남-42만
- 7. 다음주일(10월 7일)은 군인주일로 2차헌금 있습니다.

진안

주임신부: 433-0750 사무실: 433-2541 주임신부: 정 식 수
F A X: 433-7599 수녀원: 433-1531 서목회장: 구 동 수
연락장소: 433-3177 유 지 원: 433-2293

- ◎ 10월은 목주기도 성월이며, 전교의 달입니다.
- 1. 금주 ① 30일(일) 미사 후 꾸리아, 부귀미사 후 봉자영성체
 - ② 2일(화) 전9시30분 군상4,6반 가정방문
 - ③ 3일(수) 미사 후 안사회, 후7시 군하5(월랑아파트) 미방문지 가정방문
 - ④ 4일(목) 전6시 어른동미사, 전9시30분 군상7,8가정방문 후8시 미사 후 사목회
 - ⑤ 5일(금) 전9시 구역반장모임, 미사 후 성체조배

※ 인터넷 주소창에 교구나 성당 이름만 치세요! 예) http://전주교구 또는 http://순창성당

오수

주임신부: 644-9386 사무실: 642-6319 주임신부: 서 광 석
F A X: 642-6319 서목회장: 변 용 섭

1. 본당발전과 선교활성화를 위한 목주기도 누계: 211,100단
2. 성서를 통독 합니다.
3. 예비자 교리 신청 받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임실

주임신부: 643-3661 사무실: 642-2164 주임신부: 박 중 중
F A X: 642-2164 수녀원: 643-3660 서목회장: 노 세 진

- ◎ 다음주일은 만납주일이며 교무금, 성소후원금 봉헌의 날입니다.
- 1. 성체강복: 4일(목)후, 7시 30분 미사 후
- 2. 구역미사: 10월5일(금)-관촌4(일복레 테레사 맥. 후, 7시30분)
- 3. 2008년도 달력광고 원하시는 분은 10월13일까지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 4. 50주년 기금: 누계: 73,564,131원
- 5. 청소 담당구역 ① 오늘-청용 ② 5일(금)-임실5
 - ③ 7일(일)-덕치, 가리점
- 6. 차주전례 ① 해설-김광수 ② 독서-백인수 부부
 - ③ 봉헌-조진규 부부

장계

주임신부: 353-0610 사무실: 351-0111 주임신부: 엄 기 봉
F A X: 351-0605 수녀원: 353-0611 서목회장: 이 상 화

- ◎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 1. 10월은 목주기도성월, 전교의 달입니다.
※ 예비자 인도와 교리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2. 성지순례: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0월 19일(금)에 나바위성지로 <영성특강>도 함께,
※ 참가비: 만원, 도시락지참
- 3. 성체강복: 4일(목) 저녁미사중
- 4. 금주모임: 사목회(4일/목)
- 5. 전례봉사: 금주-우연대, 김제일, 안옥선, 정교문, 김효상, 박용주, 이귀라

장수

주임신부: 351-8888 사무실: 351-2264 주임신부: 정 전 봉
F A X: 351-5226 수녀원: 351-1228 서목회장: 박 동 표

- ◎ 예비자교리 시작: 첫모임-10월 2일(화) 후 8시
- ◎ 10월부터 저녁미사시간 변경: 8시~7시30분
- ◎ 2008년도 성당달력 광고 신청: 사무실
- ◎ 금주모임: 사목회- 3일(수) 미사 후
- ◎ 성체강복: 4일(목) 미사중
 1. 차주공소미사: 수분, 하동
 2. 금주전례: 박덕순, 차주-김원순
 3. 금주독서: 조성의, 이옥주, 차주-조성의, 이형순
 4. 금주봉헌: 정연수, 김점순, 차주-정영수, 김점순
 5. 금주 차량봉사: 김철수, 차주-정영수

2. 차주 ① 7일(일) 군인주일 2차헌금
 - ② 8일(월)~12일(금)까지 신부님 연례피정
 - ③ 9일(화)~12일(금)까지 말씀의 전례
 - ④ 13일(토) 민족화해와 일치미사

“온 세상을 위한 모든 교회”

이번 전교 주일을 맞이하여 하느님의 온 백성, 곧 목자와 신부, 남녀 수도자와 평신도 여러분이 우리 시대에 교회의 선교 활동이 지니는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기를 권유합니다.

‘오랜 전통’의 교회들은 과거에 선교를 위해 물질적 수단뿐만 아니라 사제, 남녀 수도자, 평신도들을 꾸준히 보냄으로써 그리스도인 공동체들 간의 효과적인 협력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의 세속화를 직면하여, 또 가정의 위기와 성소자 감소, 성직자 고령화 등의 현상들을 보고, 교회는 자신 안에 갇혀 그들의 선교 노력을 소홀히 할 위험이 있습니다. 최근에 복음이 전파된 몇몇 교회들은 많은 어려움과 장애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다행스럽게도 사제들과 봉헌된 이들이 풍부한 데, 그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그 지역의 많은 필요에도 다른 곳에서, 심지어는 오래 전에 복음화된 곳에서 사목 직무와 사도직 봉사를 수행하도록 보내집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하느님께서 섭리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비체 전체에 유익이 되는 ‘은사의 교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선교 임무는 교회가 오늘날 인류에게 마땅히 해야 할 첫째가는 임무입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문화와 사회와 윤리의 변화를 지도하고 복음화하며, 전 세계 각지에서 가난과 폭력, 또 체계적인 인권 유린으로 모욕과 억압을 받는 현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본래 선교적이고, 바로 그 토대는 주님을 향한 신자들의 사랑의 척도인 복음화의 용기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에게 선교는 더 이상 단순히 복음화 활동에 협력하는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주인공이고 공동 책임자로 인식하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 책임 의식과 더불어 공동체들 간의 친교가 성숙되고 오늘날 복음화에 필요한 수단들의 활용뿐만 아니라 인력(신부와 남녀 수도자와 평신도 자원 봉사자들)과 관련해서도 상호 협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하신 선교 명령은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전교 주일을 통해 선교에 대한 더 깊은 인식을 도모하고, 우리 시대에 복음 전파를 위하여 교회 간 협력을 증진하고 새로운 선교사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영적 여정과 교육 여정을 함께 일구어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의 선교 활동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한 목소리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외치는 부름이 모든 공동체 안에 울려 퍼져 이 땅에 하느님의 나라가 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복음화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교구 소속 선교 사제들과 남녀 수도자들과 평신도 자원 봉사자들, 그리고 다양한 자격으로 복음 선포에 헌신하는 모든 이를 날마다 기도 안에서 기억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사도로서 진심어린 축복을 보냅니다.

